

지역 소식 통



심덕섭 고창군수, 도민 체전 참가선수단 격려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난 25일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는 훈련 현장을 찾아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심덕섭 군수는 볼링장을 시작으로 야구, 축구 전용구장이 있는 스포츠타운을 방문하고 군립체육관에서 훈련 중인 배드민턴, 배구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나들목공원 풋살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와 지도자들을 만나고 고창여고 강당에서 연습 중인 체조선수들을 격려하며 결의를 다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남은 준비기간 동안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우선 건강을 챙기며 체력관리를 잘해 달라"고 격려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 추진

부안군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착한가격업소 47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 청결한 위생,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며 군민의 생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군은 매년 현장 점검과 심사를 거쳐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기료, 수도요금 등 운영 필수 공공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업소당 최대 68만원을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를 통해 지급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도모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5일까지이며 사업장 대표자가 신청서와 납부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 백제 문화권 핵심지 입증

##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서 금제 장신구 다수 출토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에서 금제 장신구와 백제계 토기·철기가 대거 확인되면서 정읍이 백제 문화권의 핵심지였다는 사실이 다시 입증됐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사적으로 지정된 이 일대에서 국가유산청 보

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제 구슬과 화형·요형 장식, 금동 이식, 청동 팔찌, 유리 구슬 뒤꽂이 등 정교한 장신구류가 출토됐다. 아울러 삼족토기, 광구, 장경호, 병형토기, 대부완 등 다양한



백제계 토기류와 철기류도 확인됐다. 특히 금제 장신구는 백제 한성기(상남관교·하남 갑일동)와 웅진기(공주 금학동·군산 여방리 등) 고분 출토품과 비교 가능한 자료로 평가돼 학술적 의미가 크다.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 2km 구간에 분포한 270여 기 가운데 황혈식 석실분 56기가 집중된 곳이다. 2018년 사적으로 지정된 이후 2022년부터 정기적인 시굴과 발굴조사를 이어왔다.

일부 고분은 도굴로 훼손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부장 양상과 축조 시기를 가늠할 주요 유물이 다수 확인되면서 백제 지방 지배세력의 실체와 정치적 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발굴 성과로 정읍의 백제 중심지 위상이 다시 확인됐다"며 "유적의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도심권 매장 유산 정보 최신화

## 정읍시, 총사업비 1억3000만원... 내년 4월 완료 목표

정읍시가 도심권 매장 유산 정보를 최신화하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나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강화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청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정읍시와 국가유산청이 함께 수행한다. 총사업비는 1억3,0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투입된다. 사업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2006년 작성된 '문화유적분지도'와 이후 학술·발굴조사 성과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공간정보서비스(CIS)'에 등재해 관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각종 개발로 지형 여건이 변해 현황화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5월 사업에 착수해 복면, 수성동, 장명동 내장상동, 시가동 초상동, 연지동, 농소동 상교동 등 도심지역 일부 약 18㎢를 우선 구역으로 정하고, 선사시대부터 한국

전쟁(1950년) 이전까지를 범위로 정밀 지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매장유산 유존지역 경계를 보다 정확히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매장유산이 없을 것으로 확인된 구역은 개발 시 추가 지표조사를 면제하거나 최소화해 행정·민간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유존지역이 포함된 사업은 보존조치 내용을 토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훼손 가능성을 낮추고 인허가 과정의 예측가능성을 높িয়ে 된다. 결과적으로 매장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는 물론 시민의 토지 이용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우리시의 매장유산 정보를 시점 기준으로 현황화해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이루는 한편, 건축·개발 등 토지 이용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해안·영호남내륙철도 반영 촉구

## 권익현 부안군수, 국토부 철도정책과 방문 강력 건의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6일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를 방문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도(새만금~부안~고창~영광~무안~목포) 및 영호남내륙철도(부안~김제~전주~김천)를 연발에 반영해 고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서해안철도를 통해 대한민국 서해랑길에 U자형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주민 및 탐방객 편의 증진과 국가 산업망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연발 국토교통부에서 발

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도가 반영돼야 하는 필요성을 철도정책과장에게 설명했다.

서해안철도 구축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국내·외 무역 전진기지로 당할 것으로 보이며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추진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또 영호남내륙철도 역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서해안과 동해안의 철도 시대를 개척해 지역경

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 서해안 및 새만금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한민국 서해랑길에 U자형 철도망 구축으로 익스트림 관광형 새만금 국가항,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무안국제공항, 목포항의 물류·교통 및 2038년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 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고창 청보리 파크골프장' 본격 운영

고창군이 '고창 청보리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창 청보리 파크골프장 준공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회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김만기·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체육회 관계자, 파크골프 동호인,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고창 청보리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해 27,279㎡ 부지에 정규 18홀 규모로 조성됐다. 기존 활용도가 낮은 공동묘지 부지를 정비해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체육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며, 대한파크골프연맹으로부터 시설 공인 인증도 완료했다.

고창군은 이번 준공을 시작으로 권역별 파크골프장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내년에는 고창읍 스포츠타운 인근 월말리에 18홀 규모의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아산운곡저수지 유류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북부권 파크골프장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어, 군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190명에 4억원 수여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난 25일 연지아트홀에서 2025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 190명에게 총 4억 원을 전달했다. 장학재단 임원과 학부모, 학생 등 200여 명이 함께한 현장은 박수와 응원으로 가득 찼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4년제와 전문대 재학생으로, 성실한 학업 의지와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을 종합해 선발됐다. 재단은 성적과 생활 여건, 활동 실적 등을 균형 있게 살펴 도움이 가장 필요한 학생에게 실질적 지원이 닿도록 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설립 이래 25년

간 시민과 출향인의 정성으로 누적 100억원 이상을 조성해 900여 명의 학생을 도왔다.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젊은 인재가 학업을 지속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장학생과 가족들의 표정에는 안도와 설렘이 교차했다. 한 수상자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인젠가 받은 도움을 지역에 돌려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부모들도 "아이들의 꿈에 뒷받침해 준 정읍에 감사하다"며 재단의 꾸준한 활동에 신뢰를 보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제19회 추담 전국국악경연대회 성황

(사)추담관소리보존회(이사장 김세미)가 주관하는 제19회 추담 전국 국악경연대회가 지난 23일과 24일 이틀간 부안 예술화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관소리를 울곧게 지켰은 명인이자 전통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하신 명창 추담 흥정택 선생의 업적을 선양 계승하고 우수한 인재 발굴을 위하여 열리는 추담 전국국악경연대회는 관소리, 고법, 기악 등 3개 부문을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로 나누어 진행하였으

며, 총 15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대회 결과 일반부에서는 △관소리 대상 윤혜자(국회의장상) △종합대상 소승연(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고법 대상 오수인(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기악 대상 박승연(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 등이 수상했으며 학생부에서는 △종합대상 김나운(교육부 장관상) 학생이 영예를 안았다.

이어 일반부 각 부문 최우수상과 신인부, 학생부 각 부문 대상 등 40여명



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대회를 주관한 추담관소리보존회 김세미 이사장은 "이번 대회가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